

권환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김 경 복**

차 례

I. 서론	III. 근원적 자유의식과 심미적 유토피아
II. 대립적 계급의식과 사회적 유토피아	1. 자연이 갖는 자유와 평등의 호혜 정신
1.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비참한 현실 폭로와 해방의식	2. 원초적 풍요와 평화의 공간으로서 고향
2. 사회민주주의 건설과 경제적 평등의식	IV. 결론

I. 서론

권환 시를 유토피아 의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근거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그의 시는 등장 때부터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권환의 문학활동은 이장렬에 의하면 1925년 『신소년』 7월호에 『아버지』라는 소년소설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¹⁾ 대체로 일본 유학 시절을 끝내고 국내에 귀국하여 1929년 카프

* 이 논문은 경남대학교 2006년도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경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1) 이장렬, 『권환 문학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12쪽. 이하 권환의

에 가입하면서 본격적 문학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카프에 가입하면서 권환은 일본 유학 시절 가담했던 카프동경지부 맹원이었던 임화, 안막, 김남천 등과 함께 김팔봉, 박영희 등의 문학주의적 프로문학론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카프 제2차 방향전환을, 즉 프로문학의 불세비키화를 주도한다.³⁾ 그 점에서 권환 문학의 핵심은 사회주의 운동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그가 당시 프로문단에 등장하면서 썼던 「무산예술운동의 별고(警顧)와 장래의 전개책」이라는 글에서 “우리 프로 예술은 관념형태의 무기이다. 그러나 이 무기의 목표는 결코 관념 세계만이 아니다. 환언하면 우리의 투쟁 대상은 부르주아 문단만이 아니고 부르주아 사회 전체일 것이다.”⁴⁾란 말에서, 또 “예술은 아지 프로의 ××[실현]이다. 아지 프로의 작용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작품에 많은 평가를 주며 아지 프로의 작용이 있으므로 인하여 우리 예술운동이 ××[혁명]운동에 한 차류이 되는 것이다.”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권환 문학은 사회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이 사회주의 사상이 바로 전형적인 유토피아 사상이라는 점에서 좀더 포괄적 접근으로서 유토피아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유토피아 사상이인 에른스트 블로흐는 공산주의 사상의 실천성과 합리성을 두고 그 전의 유토피아 사상과 구분하기 위해 ‘구체적 유토피아’라고 부르고 있다.⁶⁾ 마르틴 부버도 유토피아 속성이 사회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음을

전기적 생애와 작품 서지 목록은 이장렬의 조사를 따른다. 그의 서지 자료는 가장 최근 조사로 앞 사람들의 조사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 2) 지금까지 밝혀진 권환 시의 최초 작품은 카프동경지부에서 낸 <무산자>(1929)의 「이 풀이 되다니」다. 이 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시 창작의 출발은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김재홍, 「불세비키 프로 시인, 권환」 『카프시인비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195쪽.
- 4) 권환, 「무산예술운동의 별고(警顧)와 장래의 전개책」, 『중외일보』, 1930. 1. 10~31. 『아름다운 평등 - 권환 전집』, 황선열 편, 전망, 2002, 245쪽. 이하 권환의 작품에 대한 인용은 이 책을 참조함.
- 5) 위의 글, 위의 책, 255쪽.

밝히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이상적 유토피아로 설정하고 있다.⁷⁾ 이로 볼 때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권환 시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이 가능하다.

둘째, 그의 작품 시작이 사회주의 의식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유토피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권환의 1926년, 1927년경에 쓴 작품들마저 아직 사회주의 사상이 바탕에 스며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⁸⁾ 실제 행적을 살펴보면 사회주의적 최초 접촉은 1926년 11월쯤에 되어서야 귀국하여 과거 <염군사> 멤버들로 구성된 카프 맹원들과 비밀 합평회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그 점에서 1925년경에 쓴 작품들은 아직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기 전으로 추측되고, 무엇보다 특히 작품 내용을 분석했을 때 사회주의적 사상을 검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관점의 적용이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 시기 발표한 「세상 구경」이라는 작품은 다분히 이상적 사회상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 사상의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글에 실린 유토피아적 속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제는 한업시깃버하신낫빛츠로

「정말 그러냐? 그러면 지구도 다시 살아날수가 잇겟고나 다시한번 돌려줄터이니 다시 보아라」

「아이구 저것보시오 아버지 인제는 지구의 원군대서 사람들이 밧갈고논갈고잇서요 서로 안고입맞추고잇서요 늙은이르붓잡고 어리니를 업

6)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역, 『희망의 원리 1권』, 솔, 1993, 299-309쪽.

7) 마르틴 부버, 남정길 역, 『유토피아 사회주의』, 현대사상사, 1993, 참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공상적 성격을 갖는 유토피아와 구분짓기 위해 과학성을 강조하고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부정하는 까닭을 이 책은 자세히 해명하고 있다. 저자는 공산주의자들이 출발 당시의 필요에 의해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거부했지만 유토피아의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유토피아적이념에 충실함을 밝히고 있다.

8) 이장렬, 앞의 논문, 13쪽.

9) 위의 책, 14쪽.

고 다녀요。」

상제는 「오냐 그럴 것이다」

하고 또 박휘를 돌렸다 천량은 한참보더니 문듯깁브고 놀래여 못건대
는 말로

「참인제는 아름답게도되었습시다. 우에는 별이 반작이고 밋혜는 풀과
꽃들이 울긋불긋 피엿습시다. 산들은 제절로 높흐고 물들은 제절로 흐
릅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질겅게도 노래부르고 춤추고 잇습시다.
새들은 제작이고 소와말들은 걸어갑니다. 따뜻한 세계로 되었습시다.아
름다움 세계로 되었습시다.」

- 「세상 구경」 부분¹⁰⁾

이 동화는 천상의 옥황상제와 그의 딸 천량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망원경으로 지구를 관찰하면서 인간 사회의 싸움으로 인한 불행 뒤에 ‘사랑’이라는 약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밝힌 뒤 지구 동쪽 배달겨레의 땅으로 보이는 곳에 위와 같은 정경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¹⁾ 그런데 이 부분의 표현은 바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이상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 것으로서 권환이 일찍부터 이상적 사회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 점에서 권환 작품의 본질적 무의식은 유토피아 사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이 그의 작품 전체를 유토피아 사상의 측면에서 볼 것을 요구한다.

셋째, 권환 작품의 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이 필요하다. 많은 논자들이 권환 작품을 연구할 때 그의 카프 가담시기와 카프 해체와 그에 따른 전향시기, 그리고 해방 후 다시 급진적 사회주의 사상을 피력한 시기의 문학성을 단절로 보고 있다.¹²⁾ 그렇지만 이

10) 권경완, 『신소년』 11월호, 중앙인서관, 1925, 35-36쪽.

11) 이 동화에 대한 해석은 이장렬의 논문, 34-39쪽과 이순욱, 「권환의 삶과 문학활동」,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07을 참조할 것. 이장렬에 의해 권환의 동화, 동시 등이 발굴되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2) 대표적인 논문으로 김재홍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김재홍에 따르면 “당대의 그

는 당대의 객관적 정세의 열악함으로 인한 것인 만큼 자발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문학적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견해는 현상적 속성만으로 재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권환 시의 초기, 중기, 후기를 아우르는 연속성의 발견¹³⁾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권환 시 분석에 그의 시적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토피아 사상의 접근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권환 시를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 점에서 본고는 그의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의 발현 형태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의 특질

어떤 프로시인들보다도 전투적인 볼셰비키 시인이던 그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연약한 서정시인으로 완전히 전향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러한 서정적인 자아의 추구 또는 순결지향성은 시인 자신의 문학관이나 일제 강점 말기의 당대 현실의 열악성에 비추어 본다면 다분히 현실도피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 권환 시의 초기 시와 중기 시의 단절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재홍, 앞의 논문, 224-225쪽.

- 13) 최근 연구자들은 이 점을 중시하고 있다. 허정은 「권환 시의 변모와 연속성」이란 글에서 권환 시를 3기로 나누고 그러한 변모가 이루어진 까닭과 그 변모 속에 변하지 않는 속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1기에 보인 신념은 2기에 가서 내면 친착을 통한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3기에 자연스럽게 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권환 시는 연속성을 가진다는 결론이다. 이는 권환 문학의 연속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점에서 의의있는 자세라 하겠으나 신념이란 말이 너무 도덕적 차원에서 해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 느낌을 준다. 허정, 「권환 시의 변모와 연속성」, 『신생』, 1999년 겨울호 참조.
- 황선열도 권환 시는 두 가지 중심축, 즉 하나는 30년대 초 카프 문학이 정점에 이른 시기와 해방 직후에 발표하는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투적 투쟁성이고, 다른 하나는 카프 해산 이후 칩거 기간 동안 발표하는 내면적 자기 성찰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권환의 시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일정한 연속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시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었다.”로 밝히고 있다. 그의 견해도 일정 부분 옳은 것이지만 연속성의 측면을 ‘시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한 것은 너무 평이한 특성으로 정리한 것이라 하겠다. 이 점으로 권환 시의 특이성을 드러내기엔 그 용어의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황선열, 「아름다운 평등’을 꿈꾸며 -권환론」 『빛과 그들의 문학』, 전망, 2004, 283-284쪽.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일정 부분 작품의 연대기적 순서를 고려하
되, 주제론적 측면에서 재배열하게 됨을 밝혀둔다.¹⁴⁾

II. 대립적 계급의식과 사회적 유토피아

1.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비참한 현실 폭로와 해방의식

칼 만하임에게 유토피아는 행동의 단계로 이행하면서부터 기존의 질
서를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적으로 파괴해 버리는 ‘현실초월적’ 방향설정
을 뜻한다. 즉 유토피아에는 어떤 종류의 변혁작용이 있는 것을 강조한
다. 그가 “유토피아적 의식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역작
용을 가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현실성에 변화를 가져올 만
한 능력을 실제로 갖고 있다.¹⁵⁾”라고 말할 때, 이는 미래지향적 사상의
가치로서 유토피아 사상의 의미를 잘 말해놓고 있는 것이다.

유토피아 사상가의 한 사람인 마르틴 부버도 유토피아를 인류 정신사
에서 인류공동체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올바름에의 갈망이라고 전제하
뒤 자각적 인간의 의지 외의 어떤 다른 요인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상¹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에른스트 블로흐도 유토피아
사회상은 한편으로는 어떤 가능한 인간의 행복을 묘사하고 있을 뿐 아
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법 사상으로 설계된 어떤 가능한 인간의 품

14) 그의 시적 특질의 전개에서 볼 때 초기(카프 가담 후 예술의 불세비키화 운동을 벌이던 시기)와 후기(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활발하게 피력하던 시기) 시는 사회주의 의식의 실천이 동질적으로 드러났던 것으로 함께 묶여지고, 카프 해체 후 전향선언을 한 이후 『자화상』(1943), 『윤리』(1944) 시집을 내던 일제 말기는 서정적 성질을 띠는 작품을 쓴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세 시기로 구분한다.

15) 칼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267쪽.

16) 마르틴 부버, 앞의 책, 38-40쪽.

위를 반영하고 있다¹⁷⁾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유토피아는 종교적 낙원사상이나 종말론과는 달리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 사회상에 대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유토피아 사상은 비현실적인 사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토피아적 의식이 당 시대의 사회상과 최소한 부정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토피아는 만약 인간이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있을 때 ‘실제 주어져 있는 것’을 반박하고 수정한다.¹⁸⁾ 그것은 유토피아 사상에 들어있는 부정적 현실 비판의식을 말한다. 그 다음에 비로소 유토피아 사상가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특정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구체적 상(像)을 제시해 준다.¹⁹⁾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경우 적절성을 띤다. 그 점에서 유토피아는 비판과 대안을 모두 당대 사회와 관련 속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성격²⁰⁾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권환 시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유토피아적 의식의 구체적 표현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비참한 현실인식이다. 그것은 물론 부정적 역사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다음 작품들이 그에 대한 예다.

너들께는 여송연(呂宋煙) 한 개 값도
우리 한테는 하루 먹을 쌀값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동녘 하늘이 아직 어두운 찬 새벽부터
언 저녁별이 반짝일 때까지 돌리는 기계

빈배를 안고 부르짖는 어린 아들 딸을
떨쳐 놓고 와서 돌리는 기계

17) 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 318쪽.

18) 같은 책, 322-323쪽.

19)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思想』, 탐구당, 1988, 15쪽.

20) 마르틴 부버, 앞의 책, 40쪽.

기만척(幾萬尺) 비단이 바닷물같이 여기서 나오지만
추운 겨울 병든 아내 울울 떨게 하는 기계
가죽 조대(調帶)에 감겨 뼈까지 가루된 형제를 보고도
아무 말없이 눈물 찬 눈물만 서로 감박이며 그냥 돌리는 기계
- 「정지한 기계 -어느 공장 ××× [노동자] 형제들이 부르는 노래」 부분

안남미밥 보리밥에
썩은 나물 반찬
× [돼] 지죽보다 더 험한 기숙사 밥
하얀 쌀밥에 고기도 씹어 내버리는
× [너] 의 집 여편네 한번 먹여봐라

태양도 잘 못들어 오는
어두컴컴하고 차디찬 방에
출× [입] 조차 …… [못하] 게 하는
×× [짐승] 보다 더 …… [지독] 한 이 기숙사 거리
낮이면 비단 커튼 밑에서 피아도 타는
× [너] 집 딸 자식 하루라도 시켜봐라
- 「우리를 가난한 집 여자이라고 -이 노래를 공장
에서 일하는 수 만명 우리 자매에게 보냅니다」

위 두 편의 시는 『카프시인집』(1931)에 실려 있는 초기 작품들이다. 유토피아 의식의 출발이 현실의 결핍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위 두 편의 시는 가장 전형적인 유토피아 의식의 싹틈을 보여준다. 먼저 「정지한 기계 -어느 공장 ××× [노동자] 형제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시적 화자는 ‘여송연 한 개 값도 안 되는 돈’을 위해 ‘찬 새벽부터 저녁별이 뜰 때까지’ 노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빈배를 안고 부르짖는 어린 아들 딸”과 “추운 겨울 병든 아내”, 그리고 “가죽 조대(調帶)에 감겨 뼈까지 가루된 형제를 보고도/아무 말없이 눈물 찬 눈물만 서로 감박이”고만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를 가난한 집 여자

이라고 -이 노래를 공장에서 일하는 수 만명 우리 자매에게 보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다. “안남미밥 보리밥에/씩은 나물 반찬/x [돼] 지죽보다 더 험한 기숙사 밥”이나 “태양도 잘 못들어 오는/어두컴컴하고 차디 찬 방에/출x [입] 조차 …… [못하] 게 하는/xx [짐승] 보다 더 …… [지독] 한 이 기숙사 거리”의 표현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모두 극도의 물질적 궁핍과 함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폭로,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민중적 현실의 모순성에 대한 ‘정면적 인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시들은 당대의 민중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노동으로 편하게 살고 있는 지배계급, 즉 부르주아 계급의 비도덕성을 명확히 그려냄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사회제도적 차원의 모순에 기반하여 비인도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시들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능력의 부족에서 가난이나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적 모순, 즉 자본주의 제도에서 비인간적 상황이 발생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²¹⁾ 그 점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21) 이 시에서 보여주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 묘사를 두고 어떤 논자는 당대의 현실이 아직 산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서 이러한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인식은 관념적 인식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30년대 당시 우리나라의 직업이 아직 80%가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점차 군국주의 침략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현실에서 비록 소수지만 공장 노동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포착하여 당대 식민지 현실에서 보여지는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을 폭로 고발하였다 하여 관념적 판단이라고 보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미 “그러면 전형적, 성격적이란 어떤 것인가? 예술이란 모든 현상 가운데서 유형적(類型的; 본질적)인 것을 형상적인 감성적 형식으로 포착하고 또 추출하여 그것을 보편화하려는 것이다. 어떠한 현실을 가장 보편화하려면 가장 유형인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현실과 세계관 및 창작방법과의 관계』, 『아름다운 평등』, 344쪽)고 밝히고 있어 전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립적 관점 제시와 그것의 모순성의 폭로는 권환 시의 중요한 시적 주제로서 사회주의 의식이 되고, 본고의 연구 주제인 유토피아 의식의 한 유형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의 관점에서 현실 파악은 그가 서정적 세계로 도피했다고 비판받는 중기 시에도 여전히 검출된다. 다음 시가 그런 예일 것이다.

서리같이 허—연 머리털 위에는
검볼티가 부—영게 쌓여 있다
주름살이 쭈글쭈글하는 얼굴
흙빛같이 누르고 겹다
그리고 마른나무 껍질같은 두 손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삼대같이 야윈 다리가
중풍 병자같이 벌벌 떠다

그러나 지금도 그는 뒤뜰 논 일곱 마지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힘없는 숨을 헐떡여가며
지계를 지고 팽이를 메어야 된다
일곱 마지기 논 그것은 금쪽같이
그의 열 살 먹은 외동아들같이 사랑하고 아낀다

- 「곽침지(郭僉知)」 부분

이 시는 1939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 발표된 중기 작품이다. 역시 초기 시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민중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그의 시와 다른 점은 이 시에 와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해당하는 가

또 권환 자신이 노동자가 아닌 상태에서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이러한 작품을 생경한 관념의 작품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상황의 구체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시인 자신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한 농민의 처지와 심리를 좀더 구체적 현실에 맞게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쟁의식보다 현실적 삶의 고난이 초점이 되고 있다. 그 점 볼 세비키적 투쟁의식에 앞섰던 현실인식에서 구체적 현실파악 후의 저항 의식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작품은 특이하게 그의 시집 『자화상』(1943)이나 『윤리』(1944)에 실려 있지 않다. 시집을 꾸밀 때 이 작품의 성격이 달라서 뺏거나, 시집 발간에서 검열을 의식해 뺏다고 볼 수 있다.²²⁾ 이 점은 카프 해체 이후 사회주의 세계관의 포기와 현실도피로 권환 작품을 해석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여전히 민중의 비참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말기 일제와 일제의 타협을 거부한 채 낙향해 있을 수 있었던 심정과, 해방을 맞고 난 뒤 카프에서 같은 소장파로 활동했던 임화나 김남천의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이념성과 달리해 활동할 수 있었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³⁾

이러한 비참한 노동자, 농민의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시들은 위의 시들 외에도 그의 초기 시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 꼴이 되다니」(1929)를 비롯 『카프시인집』(1931)에 실려 있는 「그대」, 「소년공의 노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무산계급의 해방을 촉구하는 사상으로 자연스

22) 이 점은 해방 후 시선집으로 엮은 『동결(凍結)』(1946) 시집 서문에 “나의 시작에 있어 해방 이전의 본격적 활동 시대는 1932-3년 전후의 프로예술운동 전성시대였다. 그러나 그때 신문잡지에 발표된 나의 시고(詩稿)는 그후 거익우심(去益尤甚)했던 일제의 탄압으로 일편도 시집에 발표되지 못하고, 또 대부분 보존되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나의 가장 통분이 여기는 바이다”의 내용으로 볼 때 타당하다. 그 점에서 일제 말 발간된 시집만으로 중기 시의 특질을 규명하는 것은 얼마 간 오류를 안고 있는 셈이다.

23) 임화와 김남천은 일제 말에 일제의 선무공작에 협조함으로써 신념의 순결성을 상실하여 해방된 뒤 준열한 자기 비판을 거치게 된다. 그에 따라 해방 후의 사회주의 운동도 민족진영과 민주주의 이념을 아우른다는 명분 아래 타협적 성격을 일정 부분 띠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우용, 『해방공간의 민족문학사론』, 태학사, 1991, 참조

럽게 발전한다. 즉 저항과 혁명정신의 분출이다. 다음 시편들은 권환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서 언급되고 있는 ‘아지·프로시’²⁴⁾, ‘개념적 서술시’²⁵⁾의 표본으로서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무들아 나 어린 소년공(少年工) 동무들아
 ×× [마음] 아프다고 울기만 하지 말고
 ×하다고 ×× [한탄] 만 하지 말고
 우리도 얼른 힘차게 억세계 자라나서
 용감한 그 아저씨들과 같이
 수백만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맑은 ×를 ×한테를 × [지] 니기만 하는 동무들
 이리거나 저리거나 ×을× …… [우리] 들을 위해서 ×× [싸우] 자 응
 × [싸] 우자!

- 「소년공(少年工)의 노래」 부분

졌다 기어만 지고 말았다
 두 번째나 지고 말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고 난 ×× [싸움] 을 공연히 분하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준비나 하자
 타락간부
 배신자
 그놈들을 모조리 몰아내 버리고 쫓아내 버리고
 이놈의 ×× [간부] 에나 이기도록 하자
 그래서 열 번을 지면 열 번을
 백 번을 지면 백 번을

24) 김재홍, 앞의 논문, 197쪽. 김재홍은 이 논문에서 권환 시를 ‘아지프로시’와 ‘불세비키 투쟁노선 또는 무기의 시’, ‘전향과 순수서정지향성’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데, 앞의 두 시 유형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불세비키 투쟁노선으로 삼는 무기의 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아지프로시이기 때문이다.

25) 정재찬, 「1920-30년대 한국 경향시의 서사지향성 연구」, 서울대 석사, 1987, 참조.

일어나고 일어나서

이길 때까지 싸워보자

××× [저들이] 머리를 땅까지 숙일 때까지

- 「머리를 땅까지 숙일 때까지」 부분

이 두 편의 시 역시 『카프시인집』(1931)에 실려있는 초기작으로 계급적 투쟁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두 작품 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탄압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비인도적 특성을 폭로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참다운 사회혁명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 내지 부르주아 계급의 부도덕함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비참함을 알리는 측면에서 선전(propaganda)의 측면과 무산민중의 동지적 연대와 투쟁적 행동으로의 촉구를 꾀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선동(agitation)의 속성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 자체는 일정 부분 볼셰비키 혁명 달성을 염두에 둔 목적의식이란 점에서 ‘개념적 서술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의 의도적 지향성을 고려한다면 선전, 선동의 표현과 형상화는 바로 노동자 계급의 해방된 사회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의식의 표출이란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식 측면에서 권환의 시들은 당시 사회주의 시인들이 보인 계급의식의 고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명확한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통한 강력한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하겠다. 이를 당대의 비평가들이 ‘빠다귀시’로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분명한 계급적 의식과 전망을 당시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이들을 위한 전위 세력으로서 프로 조직에 आरो새기고 있다는 점은 권환 시의 독자성을, 그리고 그의 유토피아 의식의 확고성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까닭은 그가 사회주의 예술의 미를 종전 부르주아 사회의 예술적 미와 구분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형식 — 기교는 종미(種美)의 문제인데 두 계급의 미의 관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면 그들이 그렇게 유유하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르 사회의 미에 대한 관념은 유연 섬약의 표현을 미라 했다. 그들이 월(月), 화(花), 여성을 많이 찬미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그 관념의 극단화된 데카당 사상은 병쇠 퇴폐까지를 미의 상징이라고 알았다. 그러나 프로사회의 미에 대한 관념은 그와 전연 달라 건전, 강대(強大), 즉 생성 발전의 표상을 미라 한다.

— 「무산예술운동의 별고(瞥顧)와 장래의 전개책」 부분²⁶⁾

이 글은 부르 예술과 프로 예술의 미의 기준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글에 따르면 프로 예술의 미는 ‘건전, 강대, 즉 생성 발전의 표상’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것은 프로 사회 건설을 위한 무기로서 예술을 바라본다는 관점이며, 과격한 선전과 선동이 오히려 사회주의 혁명, 즉 볼셰비키 혁명의 고취에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²⁷⁾ 그런 점에서 격렬한 선전, 선동을 통한 혁명시는 그의 관점에서 볼 때 프로 예술로서 고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이론적 요청과 그의 시적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시에서 혁명의식의 고취는 당대의 역사현실과 어느 정도의 괴리를 가짐으로 인해 그가 원하는 대로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토피아 의식의 확산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런 선전과 선동의 해방의식을 고취하는 시는 『카프시인집』에 실린 일체의 시를 비롯하여 「삼십 분 간」(1932.9), 「아버지 김침지 어서 감시다! 쇠돌아 간난아 어서 가자!」(1932.12) 등의 초기 시와 「그대」(1945.11), 「어서 가거라」(1946.4), 「몇 배나 향기롭다」(1946.5), 「번식할 줄 아

26) 권환, 『아름다운 평등』, 256-257쪽.

27) 실제 그는 카프 2차 볼셰비키화로의 방향전환에서 예술이 다뤄야 할 제재와 창작방법론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것은 다분히 예술운동을 통한 정치투쟁의 성격 을 가리킨다. 「조선 예술운동의 당면한 구체적 과정」 참조.

느냐」(1946.6) 등의 후기 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시들의 목소리는 매우 격하고 저항적이어서 중기 시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 또 후기 시의 경우 적으로 규정되는 지배계급이 일제 때에는 부르주아이던 것이 일제 그 자체로 언급되거나 일제에 빌붙어 지내던 친일주구로 형상화된다는 점, 또한 미소 진주에 따른 남북 통일의 장애물로 여겨지던 정치음모가 등으로 나타나 시대적 변화상을 보여준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시가 그런 예다.

얼싸안고 정사(情死)하여라 순사(殉死)하여라.
 눈을 감은 제국주의와 함께
 풍덩 빠져라.
 태평양의 푸른 물결 속에
 일본제국주의의 애첩들아,
 일본제국주의의 충복들아.

<중략>

어서 가거라 가거라
 너희들 갈대로 가거라
 물샧 틈 없이 바위처럼 뭉치려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맑은 옥같이 티끌 없는
 우리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성스러운 조선을 위하여
 - 「어서 가거라 - 민족반역자, 친일분자들에게」 부분(『햇불』, 1946.4)

이 시에서 타도의 대상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애첩들 내지 충복들”이다. 이들은 일제 시대 친일 세력으로서 권력과 재물을 향유하고 있던 부르주아 세력, 즉 당시 대다수 조선 무산민중을 억압하던 제국주의 세력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 시대에서는 그것을 부르 계급으로 호명했지만 해방을 맞아 민족적 청산 차원에서 부르주아의 실체를 면밀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제 시대 민족적 현실과 관련된 용어 쓰기를 주저하던 것이 해방된 국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염원에 걸림돌이 되는 일체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민족의식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일제 하 상황에서 당대 부르주아를 대상으로 계급적 혁명의식을 펼치던 의식 속에도 민족주의적 해방의식이 개입되고 있음을 역추적할 수 있게 한다.²⁸⁾ 즉 권환 시에서 대립적 계급의식에 기반한 유포아 의식은 당대의 우리 민족의 역사적 현실로 볼 때 제국주의에서 독립된 사회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염원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민족의 해방운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사회민주주의 건설과 경제적 평등의식

이러한 대립적 계급의식과 해방정신의 이상적 사회상은 해방 후에야 구체적으로 권환의 시에서 발견된다. 당시 북조선에 실시되는 ‘토지개혁’에 따른 사회민주주의 사회건설이다. 다음과 같은 시가 가장 좋은 예다.

응! 제 손으로 제 땅 갈아먹는 세상
 된가래만 떼고는 사지 못하는 세상
 이게 과연 민주주의로구만
 민주주의! 민주주의!
 나는 정말 무엇도 몰랐더니
 어제나 오늘이나 땅파구 또 땅파도

28) 실제 일제 하 사회주의 운동의 많은 부분은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일환임을 밝혀낸 바가 있고, 특히 카프의 프로문학운동 자체가 민족해방운동의 사상적 투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와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지음,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249쪽.

밭 한 떼기 가져도 보지 못하던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일해두 배만 굶던 우리
 오양간에 누렁쇠보다고 불쌍하던 우리
 이젠 해방이다
 다시 한번 해방이다
 작년엔 왜놈의 쇠사슬
 금년엔 지주의 쇠사슬에서
 이것이야말로 양이구 무엇이냐
 우리 농민들의 참다운 해방이

당쉬야 녹두콩야 마음대로 자라라
 자유스런 이 땅에서
 뼈꾸기야 구제비야 마음대로 노래하구 날아라
 자유스러운 이 벌에서
 우리도 높이 부르겠다
 새로운 농부가를 해방의 노래를

- 「토지(土地) -북조선 함경도 어느 농민을 대신하여」
 부분(<현대일보>, 1946.7.8)

위의 시는 해방 후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노래한 것으로서 바로 공산주의 이념의 하나인 평등의 실천으로 북한에서 1946년 2월에 실시된 ‘토지개혁’에 대한 찬미인 것이다. 공산주의의 이념을 궤도난마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북한 현실을 남한에 있는 그가 함경도의 어느 농민의 심정이 되어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시적 화자 입장에서 볼 때 토지개혁이 갖는 획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젠 해방이다”란 감격과 “당쉬야 녹두콩야 마음대로 자라라/자유스런 이 땅에서”라는 언급은 일체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물질적 풍요까지 보장된 유토피아 상을 그려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된 근본적 계기가 바로 “제 손으로 제 땅 갈아먹는 세상”이 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 점에서 이 시는 생산수단의 평등한 분배라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의식의 속성을

본질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이 시에서 보이는 ‘민주주의’의 달성은 사회주의 사상이 민주주의 형식과 접맥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즉 사회민주주의²⁹⁾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다. 권환은 당시 이상적 사회를 민주주의에 기반해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에서 가장 강조되는 유토피아적 속성은 정치적 자유와 물질적 평등이 전제된 사회의식이다. 그것은 바로 마르크스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적 유토피아상(像)이자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민중의 합의에 의한 분배와 경작이 아니라 국가라는 권위적 교조적 집단에 의한 일방적 시행이라는 점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다. 명령에 의한 일률적이고 상복하달식 자유와 평등은 진정한 유토피아의 사회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것은 디스토피아의 전형이다. 권환은 북한의 이념적 유토피아 계기가 점차 기술관료적 근대화라는 현실적 계기에 의해 변질되어 가리란 것을 예상하지 못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사회에 있던 그로서 북한에서 보이는 ‘토지개혁’의 혁명성은 가히 공전의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산주의 사회였던 소련이 1930년대 스탈린 체제가 등장하면서 표면상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필연적으로 강제와 폭력을 동반한 농업 집단화와 경제개혁 등으로 유토피아 해체 과정이 일어났던 것³⁰⁾을 도외시하고 있었던 당시 지식인들의 맹점으로 보인다.

29)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은 다양하게 쓰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립해 있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엄밀한 의미에선 의회민주주의를 수립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한 경우에 한정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후자로 쓰일 땐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대립된 개념이 되기도 하는데, 권환의 인식으로 볼 때는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은 채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괄적 사회민주주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0) 정지창, 『유토피아·유토피스틱스·리얼리즘』, 문예미학회, 『유토피아』, 문예미학사, 2000, 11쪽.

Ⅲ. 근원적 자유의식과 심미적 유토피아

1. 자연이 갖는 자유와 평등의 호혜 정신

일체의 탄압으로 카프가 해체되고 일체의 현실적 발언이 군국주의로 치닫던 객관적 정세의 열악으로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다가오자 권환 역시 활동이 주춤해지고 시의 표현도 내면화, 서정화의 길로 접어든다. 소위 중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활동은 신문 잡지에 발표된 작품들 중 성향이 그런대로 노골적인 작품은 빼버린 채 발간된 시집 『자화상』(1943)과 『윤리』(1944)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집은 그 성격이 매우 서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카프 때의 시적 세계를 중시하는 입장의 일부 연구자들에게 작품세계의 변질 내지 현실도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작품에 대한 이해는 엄연히 존재했던 객관적 정세의 열악함과 그가 1, 2차 카프 검거에 모두 붙잡혀 옥고를 치르는 동안 발생했던 ‘폐결핵’이란 육체적 병의 심화와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 대다수 카프 맹원들이 전향 선언을 한 채 작품 창작에서 내면화의 길을 걷던 것을 생각하면 골수 운동분자로 활동했던 권환에 가해진 탄압과 감시의 눈초리는 더욱 자심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내면화는 필연적이었다고 보여진다. 또 1954년이지만 나중에 결국 폐결핵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의 발생은 그의 이 시기 시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런 점에서 『자화상』 시집의 첫 작품으로 게재된 「명일(明日)」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의미심장한 작품이다. “오! 창공이여 대지여!/ 명일이 있다 멀지 않아 명일이 온다. 환희 명일이/그래서 우리는 차고 감감한 이 밤을 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은 바로 미래지향적 희망을 노래한 것으로 유토피아 의식의 지속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블로흐에 따르면 희망은 인간의 마음 속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감정들 가운데서 가장 인

간적이며, 가장 광활하고 밝은 지평과 관계되고 있으며, 주체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욕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유토피아와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이다.³¹⁾ 즉 권환은 이 시집들에서 미래를 제시하고 기약하고 있는 점은 시간적 유토피아 양상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권환 중기시의 속성을 다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럴 때 해명이 필요한 것이 중기 시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자연에 대한 그의 인식의 경향성이다. 그것은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의 내면화라 볼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다음 시편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그는 제멋대로 해엄친다
바위도 모래도
섬도 가도 없는
새파란 하늘의 호수에
비시 비시 비시 시비 시비

그는 자유형 수영선수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위로 위로 가물가물 올라간다
푸른 대공(大空)의 물결을 헤치며
비시 비시 비시 비시

<중략>

제멋대로 난다
제멋대로 재잘거린다
쳐다보는 많은 사족수(四足獸)를
내려다 보고 비웃는 것처럼

- 「제비」 부분

31) 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 139-140쪽.

이 시는 당시 자유가 제약되던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자유로운 표상으로 인식되던 자연물에 대한 형상화다. ‘제비’는 “푸른 대공(大空)의 물결을 헤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 그 점에서 유토피아 사회에 사는 존재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제비는 어떠한 제도적 제약 없이 본능에 충실하여 자유롭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래 의식 속에서 ‘푸른 대공(大空)’, 즉 푸른 하늘로 대변되는 천공(天空)의 세계는 이상적 질서와 신성함을 지닌 공간으로 유토피아 이미지다. 천공이 생과 사의 귀의처이며 고향으로 관념되던³²⁾ 우리의 전통적 이상향에 대한 인식이라면 권환도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권환도 전통의 긍정적 유토피아 의식을 그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에 접맥시키면서 이상적 사회상의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앞에서 보았던 여러 사정으로 내면화 내지 근원화의 단계로 나아갔다고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점들은 자연에 대한 다른 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의 타당성에 힘을 받는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시들이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은쟁반 같은 둥근 달이
 새까만 구름을 헤치고 나왔다
 하얀 비단 보자기가 온 세계를 골고루 덮었다
 곳곳마다 아름다운 은가루를 뿌려 주었다

<중략>

달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그것은 네가 처녀같이 어여쁜 때문도 아니다
 은쟁반 같이 탐스러운 때문도 아니다
 너를 보고 울고 노래하는 철없고 행복스러운 시인도 아니다

32)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 연구』, 일신사, 1973, 1-4쪽.

나는 애인도 없다 추억도 탐미도 모른다
다만 너의 맑고 흰 빛이
아무런 교만(驕慢)도 없이 아유(阿諛)도 없이
온 세계를 끌고루 덮어주는 때문이다.

- 「달」 부분

아름다운 평등(平等)을 보려거든
이 설경을 보라

아름다운 차별(差別)을 보려거든
이 설경을 보라

- 「아름다운 평등」 전문

이 두 편의 시는 자연적 소재에 깃들여 있는 ‘평등’의 측면을 강조했다. ‘달빛’과 ‘눈’의 평등은 완벽하고도 근원적인 평등의 모습이다. 그러한 평등의 달성하기에 시인은 절대적 아름다움을 느낀다. 완벽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세계는 권환에게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 점에서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이 이러한 자연적 현상에 대해 끊임 없이 새로운 해석과 의미부여를 하도록 시인에게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런 평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누구나 똑 같은 처지로 그려지는 공간, 즉 “유방도 불기도/신 앞에 애인한테 숨기는 것도/모조리 보이도록/발가벗은 알몸둥이//여기는 가면과 장식/거짓과 시의가 없는 세계다//장미가 덮은 환영의 강물이/아름답게 흘러간다//수정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다”(「목욕탕」)로 표현된 ‘목욕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을 보아 알 수 있다. 그 점에서 인간에게 원천적이고 호혜로운 자연의 이미지는 권환에게 사회적 유토피아의 심미적 구현체로 기능한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등의 이미지가 심미적으로 투영된 형상, 즉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이 심미적 유토피아 의식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형상을 다

음과 같은 시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높고 푸른 하늘 쳐다보니
우리는 다 한 마리의 심해어

구루마꾼도 생선 장수도 색시도 할머니도
노새도 고양이도 도마뱀도 복덕방 노인도

- 「심해어(深海魚)」 부분

이 시가 의미있는 지점은 유토피아 이미지로서 ‘높고 푸른 하늘’의 등장이 아니라, 그러한 유토피아적 세계 속에 노출돼 있는 일상 존재의 평등성이다. “우리는 다 한 마리의 심해어”로 표상된 “구루마꾼도 생선 장수도 색시도 할머니도/노새도 고양이도 도마뱀도 복덕방 노인도”의 시행은 마치 백석의 「모닥불」을 연상시킨다. 모두 대등하고 우호적인 사회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에 와서 권환의 중기시는 결코 주관적 서정의 세계로 마냥 후퇴한 것으로 폄하할 수 없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객관적 정세의 열악과 심리적 불안 속에서 제 나름으로 이상적 사회상을 추구하고 있는 진지한 노력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혁명적 낭만주의 의식의 속성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박꽃같이 아름답게 살련다/흰 눈같이 깨끗하게 살련다/가을 호수같이 맑게 살련다//손톱 발톱 밑에 검은 때 하나없이/갓 탕건에 먼지 훤히 털어버리고/축대 뜰에 티끌 살살 쓸어버리고/살련다 박꽃같이 가을 호수같이”(「윤리」)라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문제삼을 수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유토피아 의식의 추구하고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원초적 풍요와 평화의 공간으로서 고향

이러한 자연의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심미적 유토피아 의식은 그의 고향에 대한 인식에서도 검출된다. 고향은 자연과 곧바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연이 갖는 유토피아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과 같은 시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내 고향의
우거진 느티나무 숲
가이없는 목화밭에서
푸른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어여쁜 별들이 물결 밑에
진주같이 반짝였습니다

검은 황혼을 안고 돌아가는 흰 돛대
당사(唐絲)같은 옛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은 틀림없는 내 고향이었습니다

꿈을 깬 내 이마에
구슬 같은 땀이 흘렸습니다

- 「고향」 전문

우리 집이 어드메 어느 계냐구요
산너머도 바다 건너도 아니라고

당홍 고추 하얀 박이 울긋불긋
초가 지붕을 수놓은
저—기 저 집이라고

꽃송이 같은 반시 흥시

전설같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
 까치 한 떼 날라 앉은
 저—기 저 집이랴오

- 「집」 부분

이 두 편의 시는 그가 고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에게 고향은 “우거진 느티나무 숲/가이없는 목화밭에서/푸른 물결이 출렁거”리고, “어여쁜 별들이 물결 밑에/진주같이 반짝”이는 천혜의 고장이자 평화로운 땅으로 그려지고 있다. 고향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다. “당홍 고추 하얀 박이 울긋불긋/초가 지붕을 수놓”는 곳, “꽃송이 같은 반시 흥시/전설같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까치 한 떼 날라 앉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고향 집은 존재한다. 이것들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가장 근원적인 풍요와 평화의 공간을 환기하고 일상적 현실에 유토피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즉 고향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일상적 현실의 결핍을 끝없이,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로 환기시켜준다는 의미다. 그 점에서 유토피아 의식은 근원적 기억을 매개로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제임슨이 유토피아적 사유의 근원으로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경청할 만한 것이다.

유토피아적 사유의 근원으로서 안과 밖, 심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서 근본적인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기억인 것이다. 비록 개인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선사시대의 낙원에 대한 흐릿하고 무의식적인 종류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기억이 심원한 정신요법적, 인식론적 내지 정치적 역할까지도 수행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의 출발에서 충만한 심적 충족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며, 어떤 억압도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때, 즉 쉼의 자연에서처럼 그후의 보다 세련된 의식의 정교한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라든가 아직 주관이 객관에서 분리되지도 않았던 때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³³⁾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토피아적 사유의 근원으로서 기억은 과거의 이상성을 가지고 현재의 결핍성을 첨예하게 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기억은 현실적 삶의 이상을 추구하는 추동력이다. 그 점에서 권환에게 유토피아 의식의 전개과정은 엄밀하게 보자면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에서 심미적 유토피아 의식으로의 전화가 아니라, 고향과 자연이 갖는 풍요와 평화의 원초적 기억에 입각한 심미적 유토피아 의식에서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으로 전화되어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 경우 발터 벤야민이 칼 크라우스의 말을 빌어 말하고 있는 “근원이 목표다”라는 역사철학테제는 권환의 유토피아 의식의 경우엔 아주 적절한 경우다. 그에게 과거, 또 과거역사는 <현재시간>에 의해 충만된 시간이다.³⁴⁾ 이 말은 과거의 이상이 항상 현재의 결핍에 의해 불러나온다는 의미다. 그 점에서 이상적 과거로서 근원은 미래에 추구해야 할 목표로 작용한다. 권환의 시에서 자연과 고향의 유토피아성은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으로 전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을 직접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기억 속에 있는 자연과 고향의 유토피아 의식의 구체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일제 시대 시인들에게 나타났던 고향은 대부분 기억 속에 그려진 관념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점 권환도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은 일제에 수탈되고 착취받는 현장으로서 고향 인식은 현재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과거의 평화가 보존된 고향 생각으로 당대의 고통과 시름을 달래고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인식했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를 한계전은 “시인들의 정신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고향의식은 실제 자신이 태어난 구체적인 고향에 대한 것이 아닌

33) 프레드릭 제임슨, 여홍상·김영희 역,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 창작과비평사, 1992, 122쪽.

34) 발터 벤야민,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353쪽.

경우가 많다. 그것은 보다 일반적인 것이며, 개인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줄 ‘상상적인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어머니라는 것은 이미지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현실의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국’이라는 남성적 존재와 대비되는데, 조국이 강력한 권력과 이념, 즉 ‘아버지’적인 것을 통해 지탱되는 것과 달리, 이 어머니로서의 여성성은 내밀하며, 뚜렷한 이름도 없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던 영혼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정신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다.”³⁵⁾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한계전이 말하고 있는 고향의 특성으로서 ‘상상적 어머니’는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사회의 속성이다. 실제 많은 유토피아 사회상은, 특히 권환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상은 사랑, 평화, 협동을 강조하는 ‘여성적’인 이미지로 특징지어져 할 목가적인 세계³⁶⁾라는 점에서 그의 시에 그려진 고향과 자연은 결코 단순한 서정으로의 도피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가 시에 대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부분 때문이다. 그는 시 속의 이미지, 즉 시적 판타지에 대해 유토피아 의식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할 여지를 많이 주는 발언을 남기고 있다. 즉 그는 시적 이미지는 시적 환상에 가깝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진정한 것의 갈망을 뜻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유토피아의 한 형상으로 그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염두에 두었는지 중기의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그러한 반현실적인 환상, 수동적 판타지와 다른 즉 인상, 표상 및 감정이 현실에 적합하게 통제된 판타지, 일정한 방향에 연관을 보지(保持)하면서 진전하는 소위 능동적 판타지는 현실과 독립한 자유

35) 한계전, 『1930년 시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16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5. 참조

36)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42쪽.

스러운 새 세계이면서 아름답고도 진실한 세계—훌륭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

시인의 판타지가 창조해낸 세계는 현실의 세계는 아니라는 실재할 수 있는 세계이다. 실제의 세계에는 오히려 많이 볼 수 있는 우연성과 비보편성을 모두 추거(推去)해낸 전형적인 보편적 세계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역사보다도 이상(以上)으로 철학적이며, 이상으로 장중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추상적 개념적 세계가 아니고, 구체적인 형상적 세계다. 그래서 그것은 관념적 유희세계가 아니고, 현실적 박력을 갖은 육체적 세계이다.

<중략>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판타지의 자유성(自由性)이다. 판타지의 가장 영예롭고 가장 강점인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유성이다. 그것엔 외계의 어떠한 박해(迫害)와 강압도 가하지 못한다. 펠로스트라토스의 말과 같이 “어떠한 물건한테도 위축되지 않고 똑바르게 이상을 향해 간다.”

- 「시와 판타지」(《조광》 1940. 12)³⁷⁾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적 판타지는 일반 모든 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전형적이고 보편적 아름다운 세계를 ‘자유성’을 보존한 채 그려내는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유토피아 의식에 충만한 작품이 아니고서는 곤란하다. 때문에 그가 중기에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게 그리고 있는 시적 형상도 그 본질적 흐름 면에서 본다면 그가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처럼 “어떠한 물건한테도 위축되지 않고 똑바르게 이상을 향해 가”는 의식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점에서 권환 시의 일관된 본질적 속성은 유토피아 의식의 형상화인 것이다.

37) 권환, 『아름다운 평등』, 386-393쪽.

IV. 결론

이상으로 볼 때 권환 시의 주제의식은 유토피아 의식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권환 시의 진정한 의미와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토피아 의식의 접근이 요청된다. 유토피아 의식으로 권환 시를 살펴볼 때 그의 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녔다. 첫째, 그의 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함으로써 대립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민주주의 건설을 통한 계급적 해방과 경제적 평등이 보장된 사회적 유토피아 의식을 드러낸다. 둘째, 카프 해체 이후 일제의 군국주의 노선으로 인한 객관적 정세의 악화에 따라 그의 시는 자연이 갖는 자유와 평등의 호혜 정신 및 고향이 갖는 원초적 풍요와 평화의 정신을 내면화한 심미적 유토피아 의식을 드러낸다. 그의 이러한 유토피아 의식은 상황에 따라 특질을 달리하지만 이상사회를 지향한 속성만은 변함없다.

따라서 권환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은 당대 역사 상황에 대응한 이상 사회 건설의 응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계로 계몽적 선정 선동의 표출로 말미암은 미학적 파탄이 자리잡고 있기 하지만 당대의 역사현실에 가장 긴밀하고 본질적으로 작용하는 전형적 상을 창조하여 대응했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민족 해방의 측면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권환 시의 유토피아 의식은 일제라는 역사 상황에 응전한 가열찬 인간의 이상과 갈망을 실천하고 그것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민족적, 사회민주주의적 사상의 진성성을 담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권환, 유토피아 의식, 사회적 유토피아, 심미적 유토피아, 사회민주주의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권경완, 『신소년』 11월호, 중앙인서관, 1925

권환(황선열 편), 『아름다운 평등 -권환 전집』, 전망, 2002

2. 참고문헌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 연구』, 일신사, 1973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思想』, 탐구당, 1988

김재홍, 「불세비키 프로 시인, 권환」 『카프시인비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195-230쪽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지음,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이순욱, 「권환의 삶과 문학활동」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07, 409-439쪽

이우용, 『해방공간의 민족문학사론』, 태학사, 1991

이장렬, 「권환 문학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3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정재찬, 「1920-30년대 한국 경향시의 서사지향성 연구」, 서울대 석사, 1987

정지창, 「유토피아·유토피스틱스·리얼리즘」, 문예미학회 『유토피아』, 문예미학사, 2000, 1-20쪽

한계전, 「1930년 시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16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5

황선열, 「‘아름다운 평등’을 꿈꾸며 -권환론」 『빛과 그들의 문학』, 전망, 2004, 274-300쪽

- 허정, 「권환 시의 변모와 연속성」, 『신생』, 1999년 겨울호
- 마르틴 부버(남정길 역), 『유토피아 사회주의』, 현대사상사, 1993
- 발터 벤야민(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 칼 만하임(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 에른스트 블로흐(박설호 역), 『희망의 원리 1권』, 솔, 1993
- 프레드릭 제임슨(여홍상·김영희 역),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 창작과비평사, 1992

<Abstract>

A Study of Utopian Consciousness in Kwon Hwan's Poem

Kim, Kyung-Bok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and continuity shown in Kwon Hwan's poem, the Utopian concept approach is required. From the Utopian view, his poem is explained to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his poem has the confrontational world view by disclosing the proletarian miserable reality, which reveals the social Utopian view for the ensured hierarchial liberation and economic equality by espousing the social democracy society. Second, according to the worsen international politics due to Japanese militarism since the disorganization of KAPF, his poem reveals the aesthetic Utopian concepts where the freedom of nature, reciprocity between freedom and equality and the spirit of original richness and peace of home towns are internalized. His Utopian concep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s, but same in the nature directed to the ideal society.

Therefore, the Utopian concepts in Kwon Hwan's poem may be interpreted as the challenge and controversy in response to the historic situations at his time. His limitations are the aesthetic breakdown caused by the enlightenment agitation, but it his poems greatly contributed to the liberation of people.

It is interpreted that his poems contain the real intention of national and social democratic ideology in the point where his Utopian concept

has been pursuit of the specific methods to practice the human ideal and desire in response to the Japanese colonial era.

Key Words : Kwon Hwan, Utopian Consciousness, Social utopia, Aesthetic utopia